

**국제 안전조치 강화방안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현황 고찰**

**Case Study on the Preparations of Major Nuclear Countries for the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민 경식, 김 병구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약**

IAEA의 안전조치 강화방안(SSS)은 기존의 안전조치와는 달리 새로운 개념의 안전조치로서 구체적으로는 핵물질의 직접사용과는 관련이 없는 핵연료 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이나 부품생산, 그리고 기존의 안전조치에서 제외된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안전조치 강화방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앞서 자국의 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을 보호하고 새로운 체제가 가져올지도 모르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준비 및 예행연습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국의 안전조치 강화방안 대응현황을 소개·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대응현황에 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응현황을 점검하였다. 주요국의 대응방향은 법령정비, 국가계량관리체제의 강화, 그리고 현장 예행연습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하여 현장 예행연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AEA's new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SS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safeguards system implemented only on the facilities with nuclear material, is aiming at the nuclear fuel cycle-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specified items without nuclear material and material exempted from the conventional safeguards system. Before the acceptance of new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each Member State is preparing the implementation of SSS through rehearsal in its own way in order to protect its nuclear industry and research field and to avoid any unexpected adverse impact by the new system. The paper has examined our preparatory status on SSS through the analysis of preparation in some major states such as Japan, U.S., and European Union. Major countries are preparing SSS in three directions; adjustment of legal system, strengthening of SSAC and field training. It is appeared that Korea is less prepared in the field trial than the other major countries.